日, 불교 · 가톨릭 함께 합동 세계평화 기도회

러-우크라 전쟁 종식 발원하며
임제종서 히로시마 교구에 제안
불단 받침대에 예수성상도 안치
스님 · 주교 나란히 기도문 낭독
핵무기 폐지 · 다양한 활동 발원

박영빈 객원기자



세계평화와 핵무기 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칸다 케이슈 스님과 시라하마 미츠루 주교.
사진출처=츄코쿠 신문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쟁 종식과 핵무기 폐지를 기원하며 세계평화를 위한 불교와 가톨릭의 합동 기도회가 일본에서 봉행됐다. 종교를 넘어 함께한 기도회에 대해 11월 21일 일본의 '츄코쿠 신문'이 특별보도했다.

일본 임제종 붓츠지(佛通寺)파의 대본산인 붓츠지 대방장(大方丈)에서 봉행된 합동기도회는 지난 6일, 붓츠지파의 종무총장 칸다 케이슈 스님의 제안에 가톨릭 히로시마 교구가 응하면서 성사됐다. 먼저 케이슈 스님을 법주로 붓츠지의 대중스님들이 반야심경과 다라니 등을 독경했다. 이어서 불단 앞의 받침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상을 안치하고서 시라하마 미츠루 히로시마 교구장 주교가 〈신약성서〉의 구절들을 낭독하며 기도를 올렸다.

마지막으로 케이슈 스님과 시라하마 주교가 나란히 서서 합동 기도문을 낭독했다. 합동 기도문에서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에서 분쟁이 조기에 종식되길 기원하며, 이 지상에서 핵무기가 폐지되길 바란다. 종교를 넘어서 함께 평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스님과 신부들에 더해 히로시마에 거주하는 양 종교의 신자들도 함께 참석해 약 50명이 함께 기도를 봉행했다.

합동 기도회를 제안한 케이슈 스님은 33년 전, 폴란드에서 개최되었던 종교지도자 회의에 참석하면서 당시 동석한 가톨릭 히로시마 주교구의 관계자와 교류를 시작했고 이로인해 두 종교가 비록 가르침과 신앙은 다르지만 사람들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은 동일함을 확인했다. 불교와 가톨릭의 공동기도회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조기종식과 세계평화를 주제로 처음 봉행됐으며, 올해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의 평화로운 종식을 위해 봉행됐다.

케이슈 스님은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구가 '박애의 정신'"이라며 "적극적으로 사회사업을 전개해 복지나 교육, 농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루면서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신앙도 일상생활 속에서 깊게 해 나가게 된다. 불교는 전통문화나 문화재 등 형태를 중시하지만, 실생활에서 벗어나기 쉬운 경향이 있기에, 이러한 점은 불교가 그리스도교에서 배워한다"며 평화를 위한 행동에서 종교간의 대화와 상호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라하마 주교는 "불교, 특히 선종에서는 각자 내면에 있는 불성을 이야기하고, 좌선과 같은 수행을 통해 그 불성을 깨닫고 성장해 나간다. 이는 그리스도교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묵상을 통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과 비슷하다. 기도의 대상과 형태는 다르지만 범부의 힘을 넘어 움직이는 분을 신앙한다는 부분에서 기독교와 불교는 공통되어 있다"며 두 종교간의 공통점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이번 합동기도는 평화의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두 종교가 서로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발걸음이다. 사람들 사이의 평화야 말로 부처님과 예수님 두 성인이 바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동 기도회와 같은 평화 기원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 불화 그려진 석곽 첫 발견…5세기 중반 제작 추정

산서성 유적 내…기년 · 도상 명확
내벽 석판에 별좌설법도 등 그려져



발굴된 석곽의 북벽(왼쪽)과 남벽(오른쪽)에 그려진 불화.
사진출처=환구시보

중국에서 기년과 도상이 명확한 불화가 벽화로 그려진 석곽이 발견돼 화제다. 지난 11월 22일, 중국의 '환구시보'는 산서성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5세기 중후반의 석곽에 대해 보도했다.

최근 산시성(山西省) 고고연구원은 산시성 북부의 다퉁시(大同市) 통지아완(仝家湾) 마을의 유적지에서 발굴된 석곽의 벽에서 불화와 불교적 소재를 주제로 한 벽화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벽화는 북위(北魏)의 평성시기(平城, 398~494)에 그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발굴지인 통지아완 마을은 앞서 북위시대의 고분들이 다수 발굴된 적 있으나 불화가 그려진 석곽은 해당 유적지에서도 최초이며, 북위시대의 것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것으로는 가장 이른 것으로 전했다.

산시성 고고연구원은 "무덤에서 기년과 묘주의 이름이 분명한 비석도 함께 출토되어 북위 평성시기의 것임을 확정할 수 있었다. 무덤의 주인은 형합강(邢合姜)으로 66세에 사망했으며, 묘의 조성시기는 황흥(皇興) 3년인 기원후 469년"이라고 전했다. 또 연구원측 해당 묘의 고고학적 자료를 함께 공개하면서 "석곽에는 석가여래와 다보여래, 칠불좌상(七佛座像)과 같은 불화와 함께 공양자, 비천 등 불교적 소재의 벽화가 그려져 있으며, 채색도 거의 온전하게 남아 있는 채로 출토됐다"고 밝혔다.

복원된 석곽의 북쪽 내벽 가운데 석판에는 2불 병좌설법도(竝坐說法圖)가 그려져 있으며, 연구자들은 이 그림을 석가여래와 다보여래가 함께 그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서 양 내벽에는 각각 2구의 여래설법도가 그려져 있으며, 세 벽 모두 하단부에 공양자와 예불도가 그려져 있으며 각 인물의 옆에 이름이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각형의 공간이 그려져 있다.

남벽은 3개의 석판이 연결되어 외부로 연결되는 덧문이 설치됐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내 · 외벽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 내벽은 상부에 통견의를 입고 좌선을 하는 모습의 칠불좌상과 돔형 보개(寶蓋)가 묘사됐다. 중간의 덧문이 있던 자리의 양옆에는 호랑이를 닮은 진묘수(鎭墓獸)가, 외벽에는 무사의 모습을 한 신장이 그려졌고, 내벽 천장 전체에는 여섯 명의 비천상이 남아 있다.

이 무덤은 2015년 대동시 고고연구소에서 조사발굴한 뒤 출토물의 세척, 파손부위의 접합과 복원을 거쳐 연구단계에 들어갔다. 그 결과 석곽의 각 면에서 벽화가 발견됐다. 고고연구소 측은 연구결과를 공개하면서 "묘실은 남향으로 자리 잡았으며 외곽은 39조각의 파편으로 출토됐고, 내관은 잔재만 남아 있었다. 이중 외곽을 복원하여 거의 완전한 석곽으로 만들었다"며 벽화가 발견된 계기를 전했다.

연구소 측은 "석곽의 네 벽 내부와 남벽 외부, 상판 내부에는 모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석곽벽화는 마치 법당이나 석굴사원을 방불케 하는 파노라마 형식으로 전형적인 북위 평성시기 불교사원 벽화의 전형을 보인다. 일부 도상은 후대에 조영되는 운강석굴의 풍모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인도 최초 국제불교대학 '담마 디파' 첫 삽

10만㎡ 규모…186억 소요 전망
교양 · 과학 등 국가 학위 제공



사진출처=northeasttoday

인도 최초의 국제불교대학인 담마 디파 국제불교대학이 첫 삽을 떴다.

인도 매체 인디안익스프레스(the indian express)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북동부 트리푸라주(Tripura)에서 현대 교육의 다른 분야와 함께 수준 높은 불교 교육을 제공할 인도 최초의 국제불교대학인 담마 디파(Dhamma Dipa) 착공식이 진행됐다.〈사진〉 이 자리에는 잭딥 당카르(Jagdeep Dhankar) 인도 부통령을 비롯해 현지 스님들과 한국 스님들도 참석했다.

이번 건설을 주도한 BHET 회장 담마피야(Dhammapiya) 스님은 "이 불교대학을 건설하는 것은 세속적인 현대 사회에서 '순수'를 지켜내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내면의 수행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달라이 라마도 "국제불교대학의 앞날에 행운을 빌며 최고의 불교교육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기원한다"고 축전을 보냈다.

주정부는 대학 설립을 위해 10만1171㎡ 규모의 부지를 제공했다. 공사 대금은 약 1410만달러(한화 약186억)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두 불교계 기부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의 지역지 노스이스트 투데이(northeasttoday)는 "담마 디파 국제불교대학은 교양, 과학 및 전문 분야에서 국가 공인 학위를 제공하고, 각 교육에 불교 교리를 적용하는 고등교육기관이 될 것"이라며 "인도 학생들 외에도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각지의 학생들이 이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中 스님, 재산 기부 후 욕 먹는 까닭은?

친딸 학자금 지원 요청 거부에
대중들 "진정한 자비 아니다"



전 재산 기부한 중국의 한 비구니 스님.
사진출처=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중국의 한 비구니 스님이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도 대중의 뭇매를 맞고 있다. 대학 등록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딸을 외면한 채 전 재산을 기부한 것은 진정한 자비행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증국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는 지난 11월 23일 "자신의 집을 약 82만2000달러(한화 약 11억)에 팔아 자선단체에 기부한 중국인 비구니 스님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스님은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빚을 지게 된 친딸의 도움 요청을 거부하고 전액 기부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의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Juliu Video'에는 2019년 스님이 된 익명의 비구니 스님이 최근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했다고 밝힌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다.

스님은 영상에서 "비구니가 된 후 집을 팔고 부모님이나 딸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기부했다"고 했다.

스님은 "나의 부모님은 집을 판 돈이 나의 돈이라고 말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내 스스로의 결정"이라며 "그러나 내 부모와 친딸은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스님은 "딸은 대학 졸업 후에 자격증 시험을 볼 계획이라고 내게 말했다"며 "그러면서 몇 년 후 자신이 결혼을 하거나 아파트를 살 때 어머니인 내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길 바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가족들은 내 불심을 의심하고 재산을 기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이다"라고 했다.

이 영상에는 스님을 지지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냉담했다. 누리꾼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딸한테 돈 한 푼 남기기 싫으면 왜 낳았나. 당신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다", "자신의 가족도 돕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나", "훌륭한 불자일 수는 있으나 좋은 엄마는 아니다"라는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